

군산시 3년 연속 예산 1조원 달성

새만금 내무간선도로 1150억·금강지구 농업개발 27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반영 속 무안공항과 갈등 없도록 조정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첫 발을 땀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면서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임에도, 수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말이 흘러 나온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되면서 서남권거점공항인 무안공항과의 역할 중복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갈등,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시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비롯,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조10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18년도 주요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금강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270억원 ▲비응향 정온도 개선사업 70억원 ▲바이오컴비나트 기술개발사업 24억원 ▲중대형상용차클로브 경쟁력강화사업 16억원 ▲플라즈마기술 복합연구동 건설사업 32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군산시가 밝힌 주요 국비 확보 사업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5억원

▲새만금 내무간선 남북2축도로 1150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309억원 등이 꼽힌다.

군산시도 의미 있는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당장, 새만금을 잇는 동서2축·남북2축 도로와 신항만 건설에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까지 추진하게 돼 육지, 바다, 하늘 길로 새만금을 연결, 명품 새만금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국내·외 기업유치, 새만금 조기개발, 국제항공교통 편의, 해외 관광객이나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비 확보를 정부 입장 변화로 해석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노리는 전남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사업인 만큼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하면서도 경계의 시각도 보인다.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 등으로 공항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서남권에 또다른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계획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정치권 및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9년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 선유도내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15년 이상된 상가 등 6동

불법영업·행위 강력 단속

군산시가 천혜의 절경을 갖춘 선유도 가꾸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불법 건축물 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선유도 관광명소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공무원, 경찰, 용역반원 등 100여명과 골삭기 등을 동원해 선유도 내 국·공유지에 세워진 불법건축물 6동을 강제 철거했다.

철거된 건축물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식당과 상가 등으로 소유주들의 철거 동의 의사를 받아 진행됐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섬 내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 등 총 408건을 적발, 402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건축물 6동의 자진철거를 명령한 바 있다.

군산시는 섬들을 연결하는 고군산 연결도로의 내년 개통을 앞두고 섬 내 불법건축물,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섬에서는 그동안 국·공유지에 건물 세우거나 불법영업을 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 오펀수 무단 배출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잇따랐다.

무허가로 운영되는 선유도 식당이나 불법 셔틀버스 운행 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어린이 안전 지켜주세요” 군산시는 7일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안전도시 군산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군산시 제공>

남원 교통산성서 대규모 군기고 터 발굴

통일신라 말~고려 초 추정

남원시는 교통산성의 군기고(軍器庫) 터(사진)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 말~고려 초기에 조성된 대규모 건물지(터)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산성이 조선 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군기고 터도 조선 시대 건물터로 추정해왔다.

건물지는 크게 3차례에 걸쳐 중장됐으며 가운데 1차 건물지가 가장 잘 남아있다. 이 건물지는 정면 6칸, 측면 3칸으로 장축 14.2m, 단축 8.5m, 주간 거리, 2m 내외이다.

축대는 돌과 흙을 이용해 상당한 넓이와 두께로 조성했다. 현장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문양으로 추



정되는 선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선문계기와, 격자문이 새겨진 격자문계기와와 생선뼈무늬가 표현된 고려시대 어골문계기와가 출토됐다. 이번 발굴 조사는 남원시가 교통산성 북

원을 위해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교통산은 정유재판 당시 남원주민 1만여명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산성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립박물관

송년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립박물관은 오는 16~17일과 23~24일에 송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에는 '나만의 천연향수 만들기'와 '눈 크게 떠도 몰라 매직쇼'를 열고 17일에는 '실용적인 에코백 만들기'와 인형극 '책속에 지혜가 쑥쑥'을 각각 선보인다.

23일에는 '크리스마스 향초 만들기' 프로그램과 팬타마임 '몸짓으로 말해요' 공연을 열고 24일에는 '내 피부를 위한 천연 비누 만들기'와 '블링블링 무지개색 풍선쇼' 공연이 펼쳐진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kwangju.co.kr

부안군, 백합 생산지 옛 명성 회복한다



부안군 합구마을 앞 갯벌에서 백합을 채취하고 있는 어민들. <부안군 제공>

자원 관리·여장 환경개선 총력

부안군이 부안백합 생산지의 옛 명성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7일부안군에 따르면 군은 변산면 합구마을 앞 갯벌 자원 관리와 여장 환경 개선에 총력을 쏟고 있다.

부안 지역 계획도 일대 갯벌은 예전부터 백합 다량 생산지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계획도 주변 갯벌에서는 백합이 자취를 감췄고 방조제 외측 갯벌에서 조금씩 잡

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안군은 합구마을 앞 백합 서식·생산지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백합은 감칠맛과 쫄깃한 식감이 워낙 뛰어난 고급 조개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날 것으로 먹어도 좋다는 의미로 백합을 '생합'이라고 불렀다.

백합 껍데기는 위아래가 딱 맞아서 한 번 입을 다물면 좀처럼 열기가 힘들어 순결, 정절, 백년해로 등을 상징,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다. /남·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부안 참뽕주·바뜨랑양파,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부안참뽕주와 바뜨랑양파가 올 해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 대표 상품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부안군에 따르면 전북도는 올 해 도지사 인증상품에 내변산의 부안참뽕

주와 부안마케팅농조합의 바뜨랑양파를 선정했다.

도지사 인증상품의 경우 KTX 역사 및 수도권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등 판로개척과 브랜드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남·부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609평 여객선으로 30분 320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갈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유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물계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대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순창 북흥면 전 3천여평 포함 산 75780㎡ 3억2천
- 충장로5가 대지 1321㎡ 3층건물 320평 건물신축적합 46억
- 해남 신이면 5182㎡ 식품공장·전원주택단지 감정25억선 매도13억
- 함평 해변면 2중주거지 9605㎡ 아파트(임대) 적합 60억
- 월산동 라인아파트 부근 2중주거지 758㎡ 다가구등 적합 7억
- 금남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들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영암 월출산 밑 팬션 땅 1578㎡ 관광중음 4억6천
- 영암읍 월출산 부근 상가건물 대지 1026㎡ 건물 2085㎡ 11억천
- 풍암동 식당 상가주택 대지 211㎡ 건물 193㎡ 시설완비 6억2천
- 함평 2중주거지 3544㎡ 식당과 5층 모텔 등 30억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무안군 천계면 산 16166㎡(4890평) 공사가 5억5천 매도 2억3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랑임대중음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선 교환가능 7억8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헌전, 농성초교앞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중음
- 매매 - 2500만원

문의 H.010-3605-5000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40,000m²

- ▶매매가 상당 후 결정
- ▶분할 가능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8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신단지번호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송정리 부동산 매물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투자가치의 3개소
- ▶11억, 12억, 19억
- ▶각 코너 위치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대형부지 (만오천평)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